



KT 위즈 선수들이 16일 홈경기를 앞두고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하위로 추락한 KT는 오랜 숙원인 '탈꼴찌'를 위해 매 경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탈꼴찌’ 사활 건 KT 매 경기 전쟁이다

‘4년 연속 최하위의 굴욕은 반드시 막겠다!’

2015년 1군 진입 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꼴찌, KT 위즈의 악몽이 올해도 재현될까? KT는 12일 인천 SK 와이번스전에서 패하며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시즌 처음 맛보는 아픔이었다. 이후 연패가 지속된 KT는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했다. 홈에서 열린 16일 삼성 라이온즈전과 18일 SK를 잡으며 2연승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꼴찌에 머물러 있다.

2연승에는 KT의 탈꼴찌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16일 경기에서는 선발투수 더스틴 니퍼트가 6이닝을 책임졌고, 정성근~엄상백~김재윤으로 이어지는 필승조가 무실점으로 버텼다. 감독들이 가장 바라는 계산이 쉬운 경기였다.

18일 경기는 조금 달랐다. 선발투수 금민철은 5이닝 5실점으로 고전했다. 연패 흐름에 빠졌던 KT라면 뒤집기 힘들었다. KT는 6~7회 2이닝간 5명의 투수를 투입했다. 8회 엄상백, 9회 김재윤까지 총 8명. KT가 올 시즌 정규이닝 경기에서 8명의 투수를 활용한 것은 처음이었다. 결국 타선이 터지며 6연패 후 2연승을 완성했다.

한 주의 첫 경기에 불펜 총동원은 일종의 도박이다. 불펜이 상대적으로 약한 영향도 있지만 이닝을 잘게 쪼개서라도 승리하겠다는 의지가 만든 결과다. 마운드에서 조강수가 나오니 타선도 응답하고 있다. KT는 2경기 연속 두 자릿수 안타를 때려냈고, 승부처마다 득점에 성공했다.

19일 수원 SK전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진욱 감독은 “한 경기 8명 투입은 드문 경우”라며 “전반기에는 무리하지 않고 투수들을 믿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 물량 공세를 펴고 있다. 아웃카운트를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향후 마운드 운용 방향을 공개했다. 선수단은 “지금의 연승 분위기를 이어갈 수만 있다면 꼴찌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단을 둘러싼 좋지 않은 잡음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선수단의 의지만큼은 확고한 KT다.

수원 |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베이스볼 브레이크 | 하향평준화 5위권...와일드카드결정전 무용론 다시 고개



LG 트윈스 류중일(오른쪽) 감독이 잠실구장 덕아웃에서 그라운드를 응시하고 있다. LG는 5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5할을 밀도는 승률에 머물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5할도 못 넘는 팀이 가을야구라니...

(승률)

5위 LG, 18일 현재 승률 0.492 그쳐
5할 아래 와일드카드 진출 두 차례
5위팀, 상위 PS 진출은 한번도 없어

“5할이면 되지 않겠어요?”
5위 자리 지키기에 온힘을 쏟고 있는 LG 트윈스 류중일 감독은 18일 잠실 롯데 자이언츠전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자기 의견을 밝혔다. 가을야구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해 류 감독이 내건 숫자상의 목표는 정확한 5할이었다.

18일까지 LG가 기록한 올 시즌 승패는 63승1무65패다. 5할 승률 밑인 0.492다. 포스트시즌(PS)에 진출 가능한 상위 5개 팀 중 유일하게 5할 승률에

미치지 못한다. 6위와 7위에서 호시탐탐 5위 자리를 노리고 있는 후보는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다. 이들의 승률 역시 당연히 5할에 미치지 못한다. 잔여 경기가 적지 않게 있지만 올 시즌의 페이스를 봤을 때 달성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KBO리그는 10개 구단 체제가 도입된 2015년부터 5개 팀이 PS에 나서고 있다. 4위와 5위는 와일드카드결정전을 통해 준플레이오프(준PO) 진출 팀을 가린다. 최대 2경기가 열릴 수 있는데 4위팀은 1승 혹은 1무, 5위팀은 반드시 2승을 거둬야만 준PO에 갈 수 있다. 길어진 가을야구와 뒤가 없는 와일드카드 승부에 PS 인기는 매년 치솟는 중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가을야구 자격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다.

승률 5할을 밀도는 팀이 PS에 진출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는 최근 5위로 가을야구 막차를 탄 팀들 중 5할에 미치지 못하는 팀들이 유독 많았던 이유에서다.

와일드카드결정전이 처음 열린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위로 PS에 진출한 팀은 모두 세 팀이다. 2015년 SK 와이번스(0.486), 2016년 KIA(0.490), 2017년 SK(0.524)다. 2017년을 제외하고 앞선 두 팀은 모두 5할에 미치지 못하는 승률로 가을 막차를 탔다.

5위 팀이 상위 PS에 진출한 경우는 이제껏 단 한번도 없었다. KIA가 2016년 당시 4위 팀이었던 LG와의 1차

전을 잡으며 실낱같은 희망을 키워왔지만 2차전에서 0-1로 패하며 최종 탈락했다.

PS는 정규시즌 성적에 따라 시리즈 단계마다 상위팀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하위 팀을 상대한다.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팀은 휴식 없는 일정, 선발진 소모 등의 이유로 시리즈가 진행될수록 어려운 싸움을 한다. 정규시즌 5할 승률을 만들지 못한 팀의 전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더군다나 1·2선발의 소모는 준PO에서 극도의 불리함으로 작용된다. 상위 시리즈로 가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혼전의 5위 싸움이 계속되는 올해의 상황을 볼 때 이러한 양상은 올 시즌 PS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정원상 기자 award@donga.com

“흠치려는 자, 투구동작 큰 투수부터 노려라”

강명구 코치가 말하는 ‘도루의 기술’

현역시절 도루성공률 ‘82.2%’ 자랑
강 코치 가세로 삼성 도루성공률 업

삼성 라이온즈는 전통적으로 ‘대포군단’의 이미지가 강했다. 은퇴한 ‘국민타자’ 이승엽을 필두로 술한 거포들을 배출했다. 물론 지금의 삼성은 다르다. 전성기를 이끈 주역들이 하나둘 전설로 사라지면서 팀 컬러도 변했다. 그 중 하나.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30도루를 기록한 박해민을 앞세워 뛰고 또 뛰고 있다. 팀 도루는 18일까지 95개로 한화 이글스(107개)에 이어 2위다.

‘달리는 팀’의 조력자로 강명구(38) 주루 코치가 올해 새로 가세했다. 2003년 삼성에 입단해 2014년을 끝으로 은퇴할 때까지 강 코치는 대주자 전문으로 입지를 다졌다. 1군에서 활약한 10시즌 동안 581경기 출장에 그쳤지만, 도루는 135개를 시도해 111개를 성공시켰다. 성공률(82.2%)로는 최고 수준의 ‘대도’로 손색없다(올해 박해민의 도루 성공률은 76.9%다).

2015년부터 3년간 전력분석원으로 일한 그는 지난해 가을 일본 교육리그에서부터 전공을 살려 주루코치로 변신했다. 퓨처스(2군)에서 적응기를 거친 뒤 올 6월 1군으로 올라왔다. 시즌 도중 합류한 만큼 조심스럽게 후배들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건네고 있다. 4년 연속 도루왕에 도전하는 박해민에 대해 강 코치는 “굳이 먼저 얘기할 필



삼성 라이온즈 강명구(오른쪽) 코치가 선수들의 주루 플레이를 지도하고 있다. 현역 시절 사자군단의 ‘대도’로 활약한 강명구 코치는 ‘도루는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스포츠동아 DB

요가 없겠더라”고 평가했다. 그는 “(박)해민이는 도루 기회를 포착하는 센스가 뛰어나다. 창의적이기까지 하다”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자연스레 강 코치의 눈길은 박해민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주루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쪽으로 쏠리고 있다. 그는 ‘도루 타이밍’을 강조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하우다. 크게 두 가지 포인트에 주목하고 있다.

강 코치는 “투구동작이 큰 투수를 공략하는 게 먼저다. 킥모션은 빠르지 않아도 투수 상대로는 도루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다음은 당연히 변화구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 요즘은 볼카운트 3-0에서도 변화구를 던지는 투수가 있다. 그러나 늘 꾸준하게 투수들을 관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 |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백선)

3개월 만에 컴백 안우진 다양한 구종에 주목하라



백선 안우진

103일만의 선발 복귀전이다.

두 차례 선발등판 기회에서 2패, 평균자책점 14.85(6.2이닝 11자책점)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백선 장정석 감독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다. “마운드에 오르면 오를수록 안정감이 생기고, 벤치의 평가도 좋아졌다. 다시 기회를 줘도 좋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하나하나 시도하려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우진은 후반기 6경기에서 모두 구원등판해 1패, 평균자책점 2.45를 기록하며 전반기와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직구와 슬라이더 위주의 단조로운 투구패턴에서 벗어나 커브, 체인지업 등의 변화구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평균구속 시속 148.7km인 포심패스트볼과 주무기인 슬라이더의 구위는 이미 검증했다. 최근에는 커브를 서드 피치로 만들어 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안우진의 올 시즌 직구 58.6%, 슬라이더 30.7%, 커브 8.4%, 체인지업 2.3%다. 커브와 체인지업을 거의 던지지 않았던 데뷔 초와 확연히 달라진 수치다. 이번 선발 복귀전의 핵심 포인트 또한 구종 다양화의 성공 여부다. 장 감독은 “많이 맞아보면서 느낀 게 있을 것이다”며 “각이 큰 변화구를 던지는 등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모습도 좋았다”고 밝혔다.

고척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